

# 釜山·慶南의 無文土器\*

安在皓\*\*

##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釜山·慶南地方의 無文土器編年과 性格 |
| 2. 諸遺蹟의 검토      | 5. 맺음말                 |
| 3. 蔚州 檢丹里遺蹟의 검토 |                        |

## 1. 머리말

南韓의 無文土器文化는 西北·東北地方文化의 영향을 받은 漢江流域에서 가장 먼저 成立되었다. 南部地方의 無文土器문화는 이 한강유역에서 형성된 可樂里式, 驛三洞式, 欣岩里式土器文化가 전파되어 시작되고 그뒤 靑銅器·鐵器文化의 집축으로 松菊里式, 水石里式, 勒島式으로 발전하였다.<sup>1)</sup>

釜山·慶南의 無文土器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최근 합천댐 수몰지구의 先史遺蹟에서 好資料가 多出하였고, 또 울주 검단리환호遺蹟에서도 다량의 공반유물이 출토되어 상당한 자료가 축적되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이미 알려진 釜山·경남의 여러 遺蹟에서 검출된 유물의 편년을 시도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諸遺蹟의 검토

釜山·경남지역에서 後期無文土器時代의 前段階에 속하는 유물이 출토된 곳은 20여개소에 달한다. 이 중에서 土器·石器의 공반관계를 알 수 있는 遺蹟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자.

\* 이 글은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0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발표요지를 정리한 것임.

\*\* 釜山大學校 博物館 學藝研究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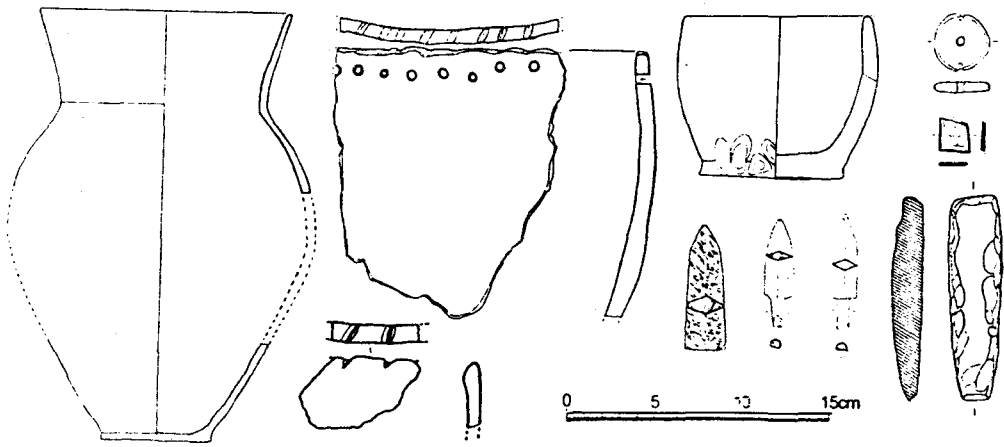
① 합천 저포리 E지구遺蹟<sup>2)</sup>

住居址 1棟과 支石墓 7基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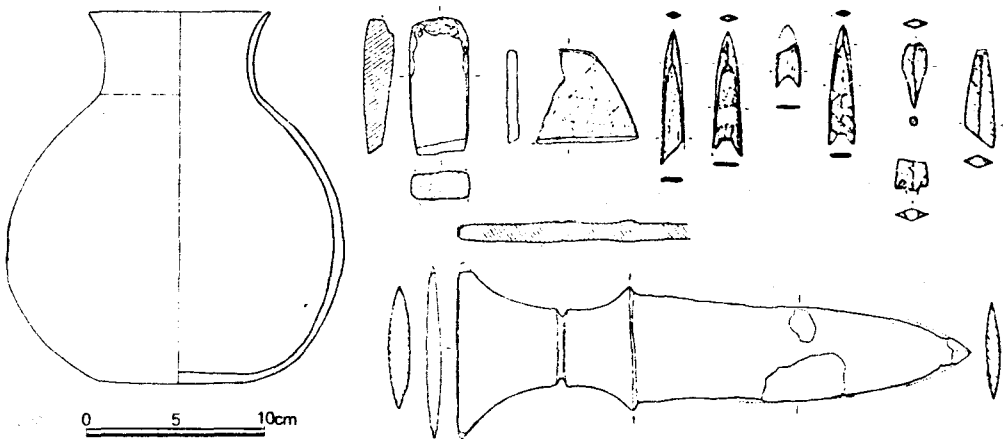
住居址遺蹟은 同時期에 축조된 소규모의 集落址이다. 口脣刻目·口脣刻目孔列土器와 無莖式·有莖式石鏃등이 출토되었다. 有莖式石鏃은 莖部가 납작한 형태이다.

支石墓遺蹟은 下部構造가 地下式인 7號墳과 地上式인 1~6號墳으로 時期上 兩分되는데, 7號墳이 빠르며, 住居址遺蹟과 同時期이다. 출토 유물은 住居址에서 출토된 것과 同型式의 石鏃외에 桴形석도와 일단병식석검, 丹塗磨研土器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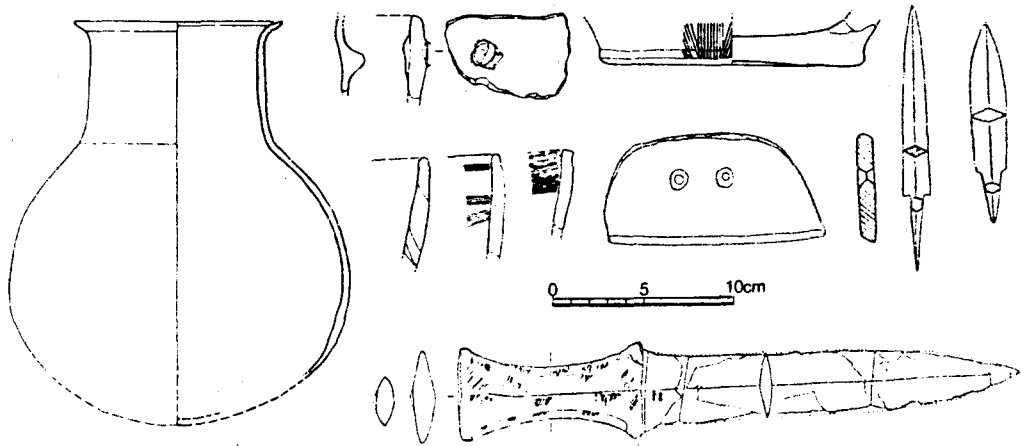
늦은 時期의 5~6호분에서는 꼭지가 부착된 발과 桴形석도, 유경식석촉, 일단병식석검이 공반되었다. 석촉은 경부의 단면이 육각형인 것이다.



1도. 저포 E 주거지



2도. 저포 E 7호 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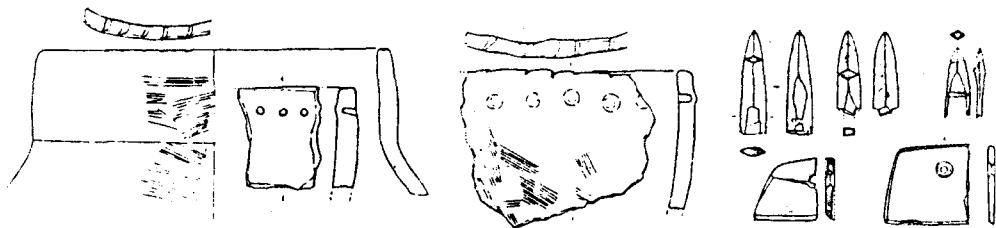


3도. 저포 E 5·6호 지석묘

② 居昌 山浦1호 住居址<sup>3)</sup>

前述한 저포 E지구 5·6호 지석묘의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일단병식석검과 유경식석촉이 매납된 지석묘군 아랫층에서 발견된 住居址이다.

공열土器, 구순각목·구순각목공열土器와 무경식석촉, 납작한 경부를 가진 유경식석촉이 공반되고, 橢形, 장방형석도가 출토되었다. 이 住居址는 유물의 조합에서 苧浦E地區住居址와 同時期로 보고<sup>4)</sup>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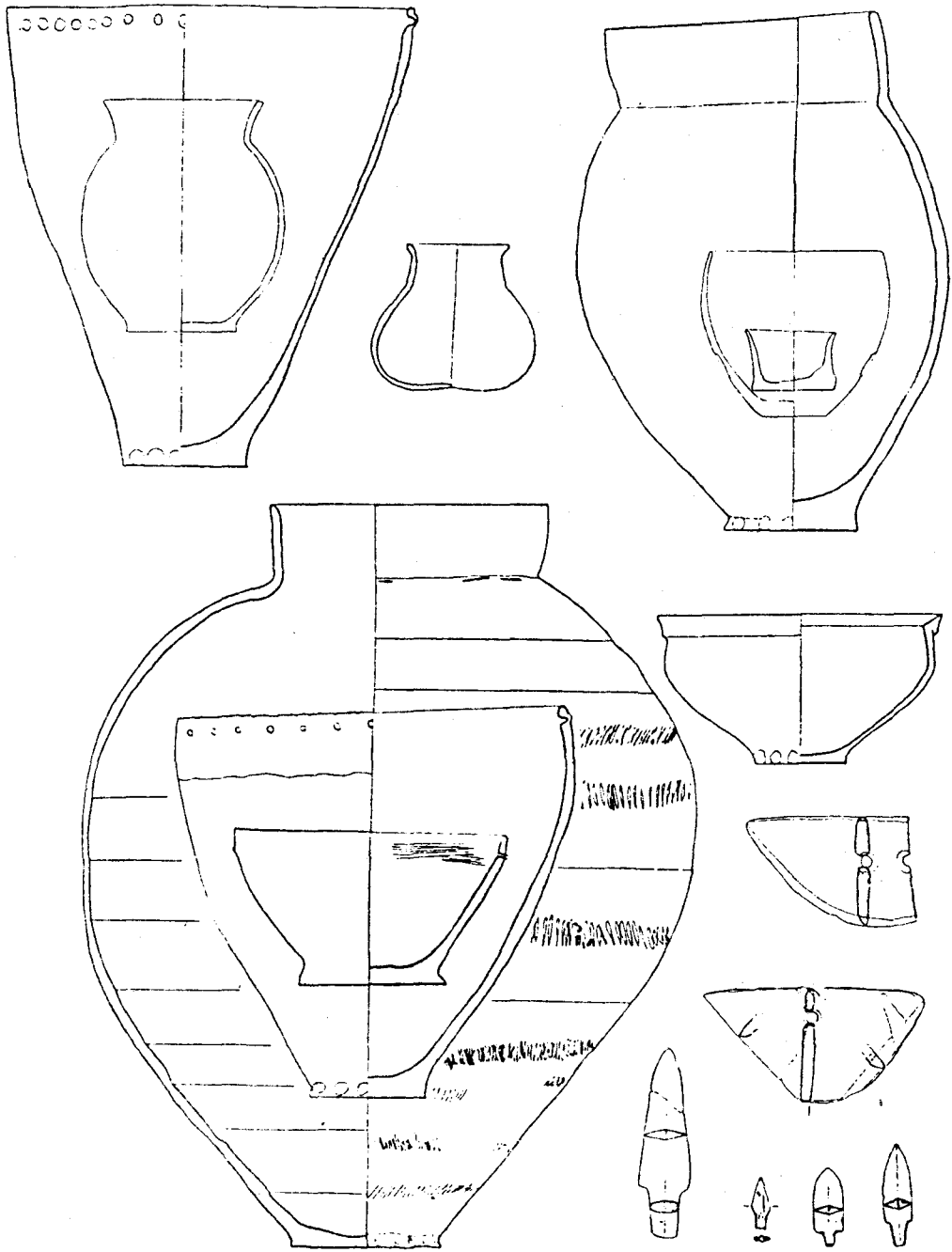


4도. 거창 산포 주거지

③ 普陽 大坪里住居址<sup>5)</sup>

대형의 장방형住居址에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공열문土器, 二重口緣의 흔적을 지닌 구순각목공열土器, 直立口緣의 壺, 변형각형土器, 주형석도, 삼각형석도, 유경식석촉등이 출토되었다. 석촉은 경부의 단면이 육각형이며, 溝가 새겨진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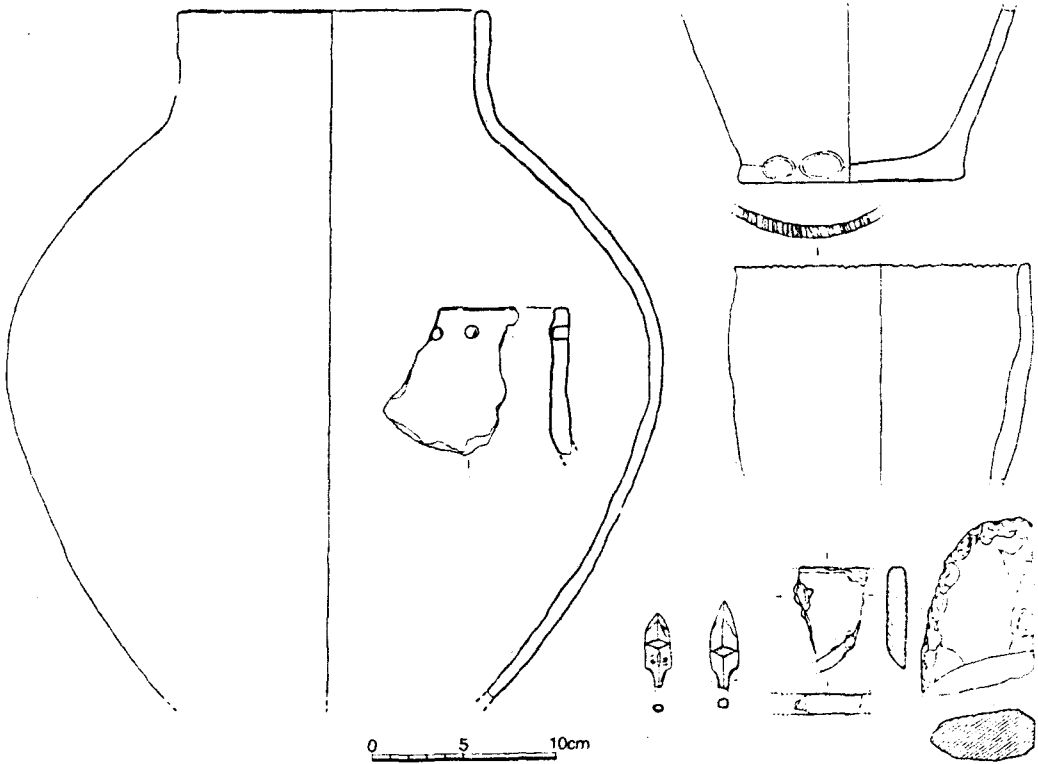
5도. 대평리 주거지

④ 釜山 老圃洞遺蹟<sup>6)</sup>

原三國時代의 墳墓址 內에서 2棟의 住居址가 檢출되었다. 出土된 유물은 住居址와 古墳의 內部, 表土層에서도 채집된 것이기는 하나 모두 同時期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孔列文土器, 口脣刻目文土器, 直立口緣壺, 舟形石刀, 有莖式石鏃이 出土되었다.

直立口緣壺는 大坪里住居址의 것과 동형이며, 석촉의 형태도 경부가 단면육각형으로서 舟形石刀와 共伴된다는 점은 大坪里住居址의 예와 같다.



6도. 부산 노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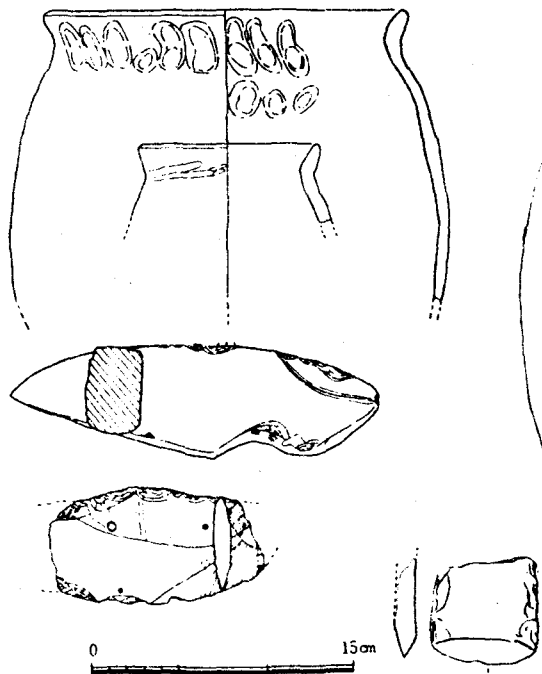
⑤ 의창 신촌리Ⅱ지구<sup>7)</sup>

양과모양의 丹塗磨研土器가 出土된 石築석관묘 부근의 山斜面에서 外反口緣甕과 有溝石斧, 魚形 또는 舟形의 曲刃석도가 함께 英켜 出土되었다. 이것은 송국리유형의 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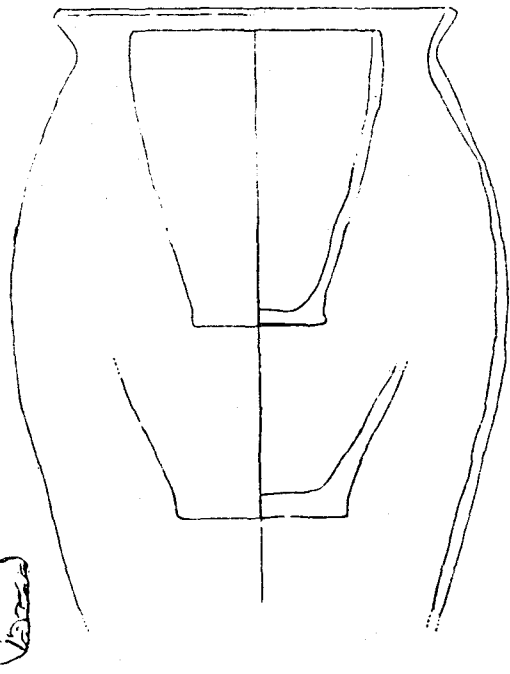
⑥ 陝川 鳳溪里遺蹟<sup>8)</sup>

新石器時代 住居址群에서 3棟의 無文土器住居址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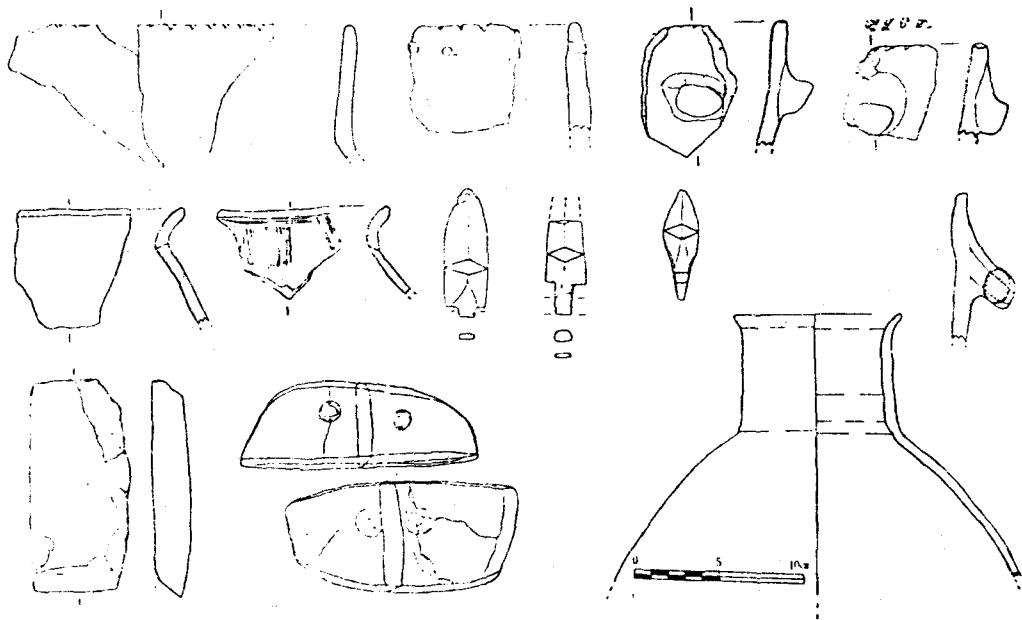
이 遺蹟의 無文土器는 서울 역삼동출토품과 유사하며 송국리식, 수석리식의 유물이 전혀



7도. 신촌리 II 지구 2지점



하동양구



8도. 함천 봉계리

검출되지 않은 단순유물이라 보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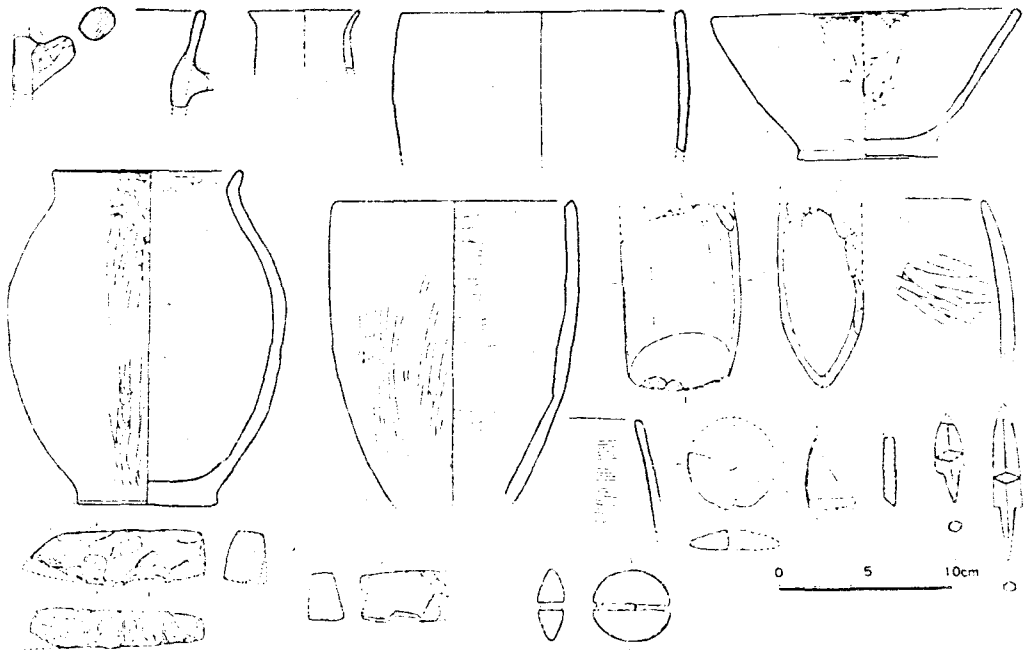
유물은 住居址에서 출토된 것 외에도 돌무지遺構와 주변 포함층의 것이 있다. 住居址에서는 심발형土器와 즐형·주형의 석도, 莖部가 납작한 유경식석촉, 石鎌 등이 출토되고, 돌무지와 주변 포함층에서는 口脣刻目文壺, 口脣刻目孔列文土器가 있고 꼭지가 달린 鉢形土器에는 구순각목문이 새겨진 것도 있다. 석촉은 유경식으로 경부가 납작한 형태이다.

보고자의 의견과 같이 봉계리遺蹟의 無文土器가 同時期의 것이라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저포E지구의 住居址와 저포5·6호지석묘의 사이에 편년시킬 수 있겠다.

⑦ 居昌 大也里遺蹟<sup>9)</sup>

新石器時代부터 三國時代에 걸친 住居遺蹟으로 無文土器時代 住居址는 원형과 장방형의 두 형태가 있고 住居址의 중복과 유물의 비교에서 圓形住居址가 장방형 住居址보다 앞선 時期의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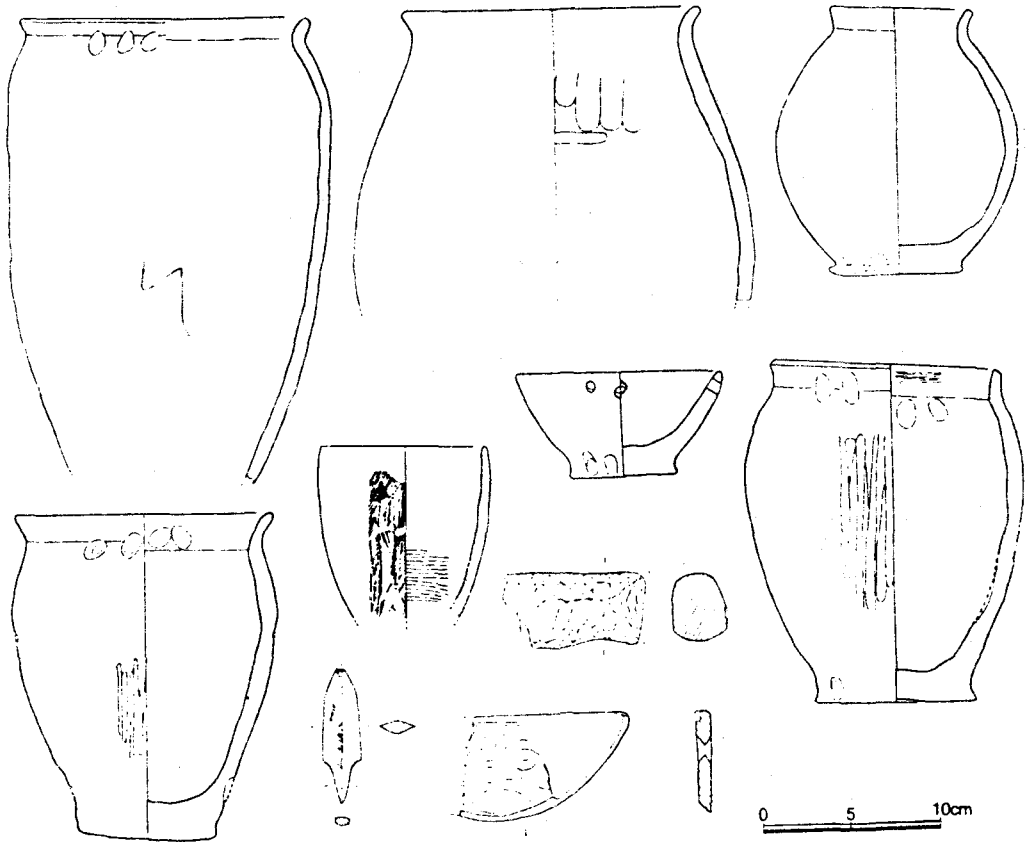
원형住居址(古式)에서는 外反口緣의 甕도 출토되고 있으나 深鉢形土器가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다. 이 深鉢形土器는 口緣이 内傾하는 것, 直立하는 것이 있다. 석촉은 유경식으로 경부의 단면이 육각형이다. 石刀는 直刃으로 즐형인 듯 하나, 石鎌 또는 2차가공 石器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有溝石斧, 蛤刃石斧가 출토되며 淺鉢은 대평리의 것과 기형이 유사하다.



9도. 대야리(원형 주거지)

장방형 住居址(新式)에서는 深鉢이 일부 출토되었으나 송국리식 外反口緣甕이 숫적으로 많다. 주형석도와 유구석부, 유경식석축이 출토되었다.

大也里遺蹟의 新·古式遺物은 有溝石斧, 有莖式石鏃, 外反口緣甕 등이 공통으로 共伴되며, 이것은 松菊里類型과도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식의 원형住居址에서 深鉢形土器의 출토량이 많은 점은 松菊里遺蹟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된다. 深鉢形土器는 한강유역의 前期無文土器의 주된 기종이고, 앞서 살펴본 孔列土器, 口脣刻目文土器가 시문된 기형이었다. 그래서 고식의 유물은 역삼동유형과 松菊里類型의 중간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며 대야리遺蹟의 표토층에서 채집된 꼭지가 달린 鉢形土器도 고식유물과 공반되었을 것으로 보고자 한다.



10도. 대야리(장방형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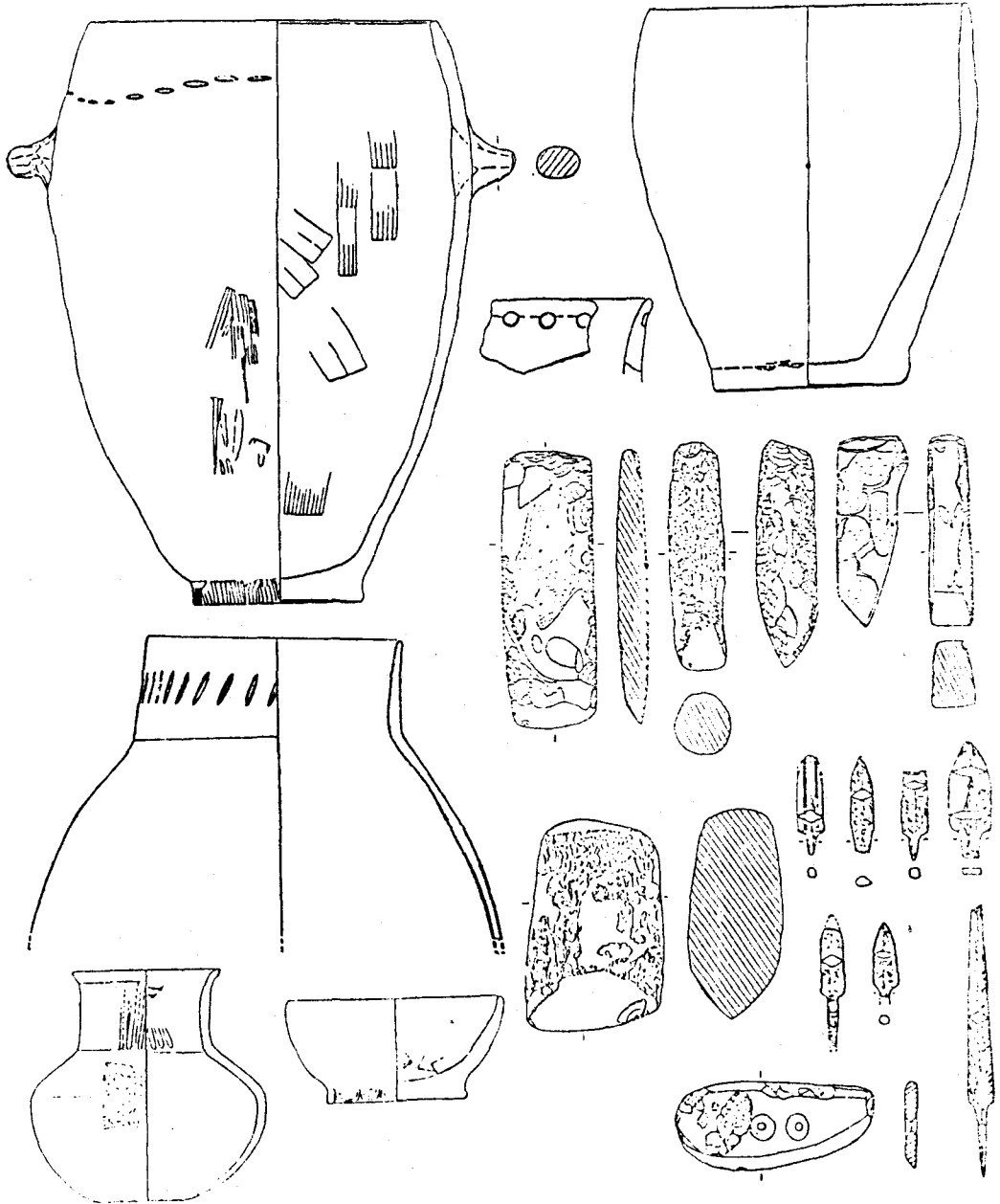
이상의 遺蹟을 통하여 3군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저포E지구 住居址, 동 7호지석묘, 山浦1호住居址, 大坪里住居址, 老圃洞遺蹟으로서, 역삼동유형인 공열土器, 口脣刻目土器와 무경식석축, 즐형석도가 주된 유물이다.



둘째, 鳳溪里遺蹟, 苧浦E地區 5,6호지석묘로서 土器는 역삼동유형으로 꼭지가 부착된 深鉢形土器(把手附鉢)가 공반되며, 주형 또는 어형의 曲刃石刀와 一段尖根莖式石鏃<sup>10)</sup>이 출토된다.

세째, 大也里住居址, 新村里Ⅱ地區遺蹟으로서 松菊里類型의 土器와 유구석부가 출토된다. 그외의 石器는 둘째와 같은 양상을 띤다.



11도. 울주 검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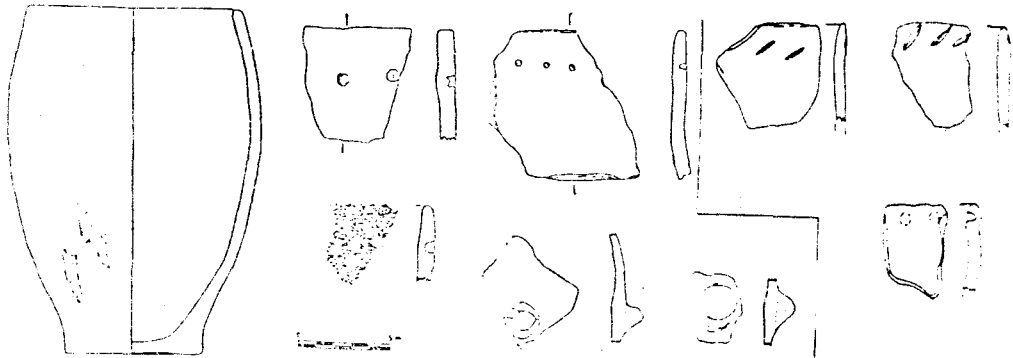
### 3. 蔚州 檢丹里遺蹟의 검토

이 遺蹟은 欣岩里類型과 송국리유형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는 대규모 環濠集落遺蹟이다.<sup>11)</sup> 이 遺蹟에서 검출된 유구는 住居址가 93동, 溝 10기, 수혈 3기, 지석묘 3기와 둘레 298m의 타원형 환호로서 土器와 石器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유물은 유구의 중복관계로써 時期的 변화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환호와 住居址의 중복, 住居址들의 중복을 토대로 유물의 선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土器類는 문양으로 보면 孔列土器, 短斜線文土器, 橫線文土器가 있고 기형으로는 호, 심발, 파수부발, 淺鉢 등이다. 丹塗磨研土器는 평저의 長頸壺가 있다.

孔列土器는 壺·鉢의 기형에 구멍을 밖에서 눌러 반관통시킨 것으로, 釜山 조도패총<sup>12)</sup>의 孔列土器와 같이 구멍이 작고 口緣에서 좀 떨어진 아랫쪽에 시문된 것이다. 구멍을 내측에서 반관통시킨 것도 있다. 그리고, 壺의 경우 구연이 直立하고 肩部가 부풀어 오르며 胴 아랫쪽이 길게 뺀 형태가 있는데, 前記의 대평리와 老圃洞遺蹟에서 출토된 壺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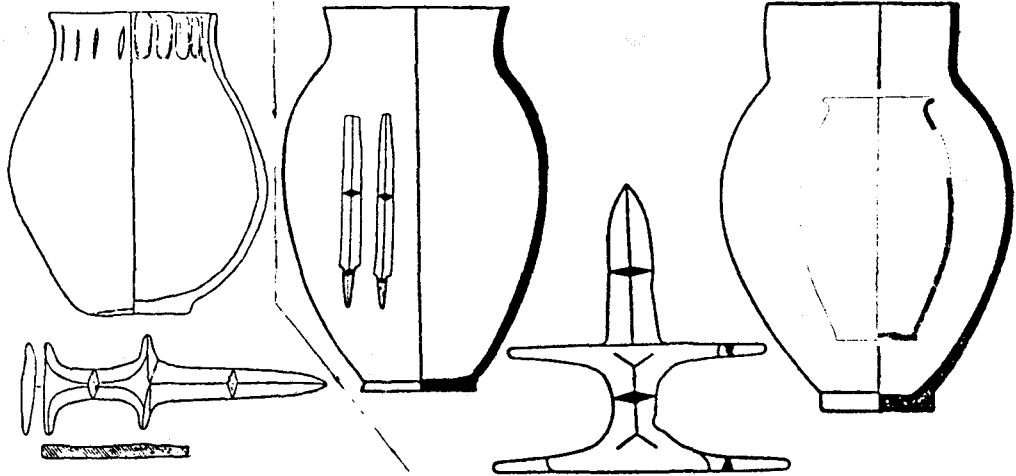
12도. 부산 조도패총

부산반여동

短斜線文土器는 壺·鉢의 기종이 있다. 대체로 釜山 盤如洞遺蹟<sup>13)</sup> 출토품과 같이 구연 아래 짧게 시문한 것과 경부의 중앙에 길게 시문한 것이 있다. 후자는 기형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지만, 釜山 사적동석관묘<sup>14)</sup>에서 일단병식석검과 공반된 壺의 문양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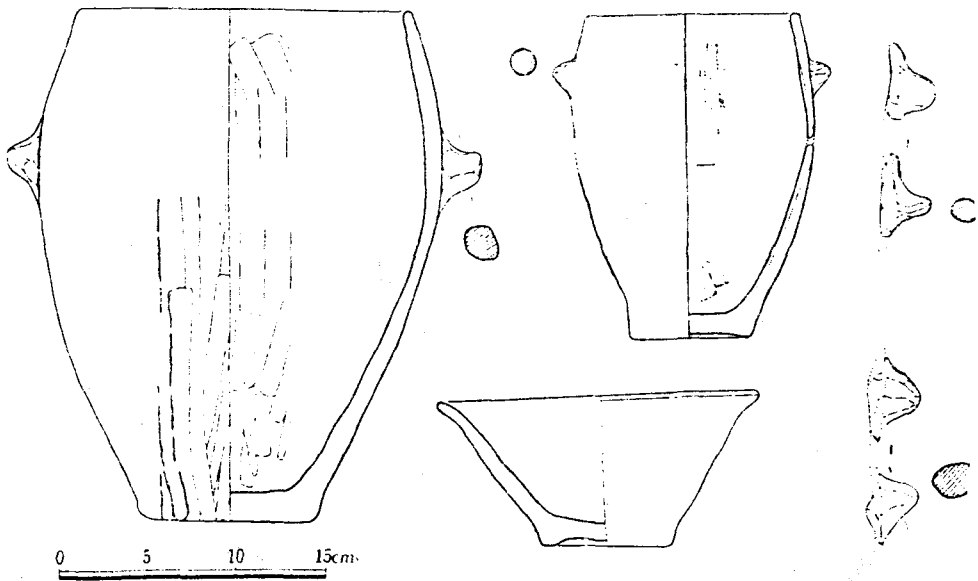
횡선문은 구연 가까이에 횡으로 짧은 선문을 한바퀴 돌린 것인데 把手附鉢에 시문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양은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고 把手附鉢은 동형이 양산 新平 住居址<sup>15)</sup>에서 淺鉢形土器와 함께 출토되었다.

丹塗磨研土器는 동체에 약간 각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球形이며 경부가 거의 직립하다가 口緣에서 급하게 외반하는 형태로서 평저인 것이 특징이다. 苧浦E地區의 5호지석묘, 봉



13도. 부산 사직동

부산 괴정동



14도. 양산 신평

계리 유적에서 검출된 壺形丹塗磨研土器가 유사한 형태이다. 또 한 예는 축약된 저부에 외반 구연을 가진 소형옹이 있다. 이 丹塗磨研土器는 동부가 구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송국리遺蹟<sup>11</sup>에서 출토된 컵형태의 丹塗磨研土器와 동일 계보로 보인다.

그외 無文土器는 深鉢形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구연이 直立하거나 약간 내경하고 있다. 그

리고 底部는 圓板狀의 축약된 것이고 내면이 편평하다. 把手는 이러한 深鉢形土器의 口緣 가까이 또는 胴上方에 한쌍이 부착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여러 유적의 把手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石器類는 有莖式石鏃, 舟形과 魚形의 石刀, 蛤刃石斧, 片刃柱狀石斧, 扁平片刃石斧, 有溝石斧, 紡錘車, 松菊里式石劍, 二段柄式石劍, 未完成石器 등이 출토되었다.

石鏃은 모두 有莖式의 一段尖根莖式인데 1점만 平根莖式이다. 이 石鏃은 鳳溪里住居址의 포함층에서 출토된 것과 같이 身部의 폭이 넓은 것인데 有溝式石鏃과 孔列土器가 共伴되었다.

有溝石斧는 前述한 丹塗磨研土器 중에서 外反口緣을 가진 小形甕과 共伴되었다.

본 검단리유적은 환호설치 시기를 중심으로 그 前後의 3기로 구분할 수 있고, 住居址의 중복관계로서는 더 이상의 細分도 가능하다. 그러나, 각 유구의 유물을 결부시켜 보면 대략 2段階로 설정할 수 있다.

古式은 환호 이전에 설치된 住居址에서 출토되는데 孔列土器, 一段平根莖式·有溝式石鏃이 특징적인 유물이다.

新式은 환호 이후의 住居址로서 短斜線文土器, 把手附橫線文土器, 外反口緣甕形의 丹塗磨研土器, 一段尖根莖式石鏃으로 분류된다.

그외의 石斧類, 石刀, 把手附鉢, 平底長頸壺形의 丹塗磨研土器 등은 新·古式 모두에서 보이고 있다.

有溝石斧와 有莖式石劍은 松菊里유형의 표지적 유물인데, 本 검단리유적에서는 松菊里式土器라 불리우는 外反口緣甕의 無文土器가 출토되지 않았으나 松菊里유적에서 출토된 바가 있는 外反口緣甕의 丹塗磨研土器는 有溝石斧와 공반되었다. 이 丹塗磨研土器는 크기와 전반적인 기형상으로는 松菊里출토의 것과 同一하다. 다만 胴部가 球形에 가까운 점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것은 松菊里유적과 검단리유적의 시기적 또는 지역적인 차이로 볼 수 있겠다. 이 器種의 土器는 환호 이전에 설치된 住居址에서도 검출되고 있어서 古式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孔列土器와 有溝石斧와의 年代는 지금까지의 출토예로 보아 松菊里유적에서 처음으로 有溝石斧가 나타나므로 有溝石斧가 늦은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합천·거창지역의 諸유적에서 뚜렷이 증명되고, 孔列土器文化가 松菊里유형의 文化에 先行한다고 보아야 할지 孔列土器文化위에 松菊里유형이 남부지방으로 확산되어 결합된 것<sup>17)</sup> 인지는 지금부터의 과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松菊里유적은 欣岩里 유형이 보이지 않는 단순 유적인 반면 검단리유적의 松菊里 유형은 欣岩里 또는 驛三洞유형과 결합된 양상을 보이며, 大也里古式住居址에서도 검단리와 동일한 유물 조합을 이루다가 新式住居址에서 순수한 松菊里유형의 土器가 나타나므로 松菊里유적은 시기적으로 驛三洞유형의 유적보다 늦게 편년하는 쪽이 좋고, 그래서 松菊里유적을 중기로 설정하고 있는 최근의 의견<sup>18)</sup>은 설득력이 높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시각으로 松菊里유적을 재조명하면 松菊里유적이 지리적으로 한강유역의 前

期無文土器유적과 인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文化的 단절을 보이며, 흡사 집단 전체가 西北地方에서 이주하였는 듯한 의문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松菊里유형은 西北地方과 東北地方의 文化가 융합된 欣岩里유형<sup>19)</sup>을 기반으로 새로운 靑銅器文化와 農耕文化를 수용하면서 형성된 無文土器中期文化로 보고자 하며, 松菊里유적은 시기적으로 大也里新式단계, 新村里Ⅱ地區 2地點과 同時期로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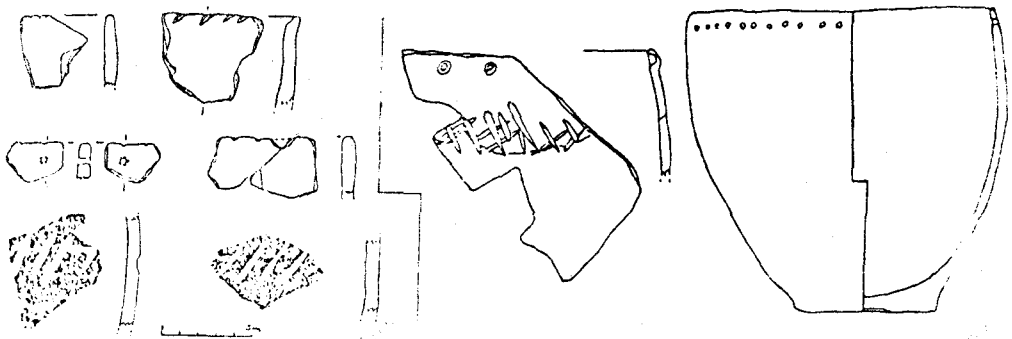
결국, 검단리 유적의 古式단계는 欣岩里유형과 松菊里유형이 공존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松菊里유형의 初期로 규정하고자 한다.

한편, 검단리유적의 新式단계는 短斜線文土器를 표지 유물로 보아도 좋은데, 釜山 盤如洞1號住居址에서는 이 문양의 土器가 孔列土器와 공반되고 있어서, 검단리유적의 新·古式 兩者는 거의 同時期로 보아도 좋을 만큼 시간적 폭이 좁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4. 釜山·慶南地方의 無文土器編年과 性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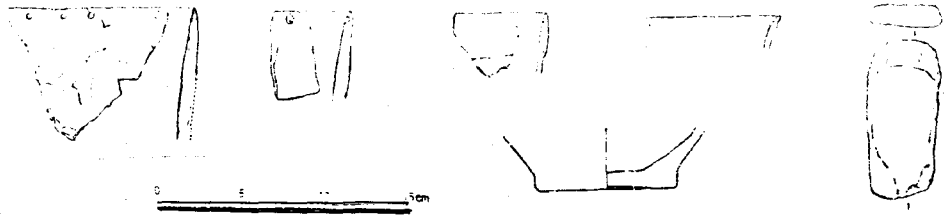
釜山·慶南의 無文土器文化의 형성은 漢江구역의 초기 양상과 같은 맥락을 밟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可樂里式과 驛三洞式이 복합된 欣岩里유형이 전파된 것<sup>20)</sup>으로 보는 쪽이 지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昌原 城山貝塚<sup>21)</sup>과 진양 사평리유적<sup>22)</sup>에서는 深鉢形土器에 二重口緣의 접합부를 단사선 또는 격자문으로 시문한 孔列土器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河東 진고개유적<sup>23)</sup>에서는 孔列土器, 二重口緣土器가 함께 채집되었다. 이들 유적은 李白圭氏의 欣岩里유형으로 간주해도 좋겠지만 그 외의 유적에서는 孔列土器, 口脣刻目文土器가 각각 단독요소 또는 복합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한강구역의 시각으로 보면 驛三洞유형인 후자가 시기적으로 앞선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釜山·慶南지역의 驛三洞유형은 把手附鉢과 결합되거나 공반되는 예를 중요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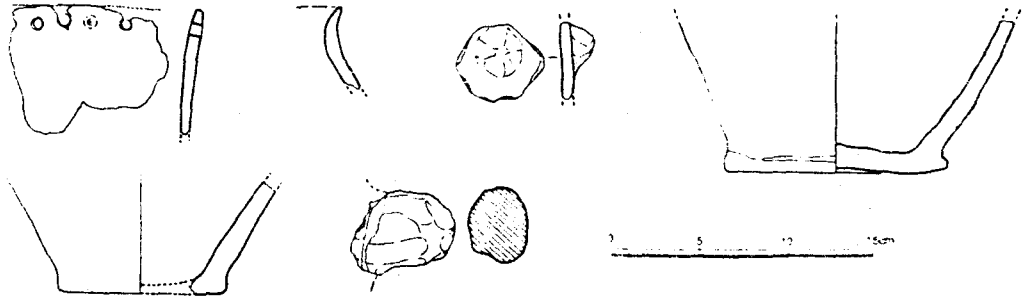


15도, 성산 패총

진양 사평리



16도. 하동 진고개



울주 양동리

면 오히려 낮은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식조사를 거치지 않은 이들 자료들은 1개로 묶어 동시기로 편년해 두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無莖式石鏃이 前期無文土器時代에서도 이른 형식<sup>24)</sup>이며, 검단리유적의 예로 보아 把手附鉢은 松菊里유형과 驛三洞·欣岩里유형의 과도기적 유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다음과 같은 편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산·경남지역에 있어서 粘土帶土器段階 前시기의 無文土器를 3段階로 구분하였다.

I段階: 漢江유역의 可樂里式, 驛三洞式, 欣岩里式 형식의 유물군으로 櫛形石刀는 이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특징적 유물이다.<sup>25)</sup>

II段階: I 단계의 土器가 퇴화된 孔列文土器, 短斜線文土器가 계속되며 口唇刻目文土器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대신 把手附土器가 등장한다. 石刀는 舟形이 石鏃은 一段平根莖式이 주체를 이룬다.

검단리유적에서는 有溝石斧, 有莖式石劍, 外反口緣甕形의 丹塗磨研土器가 松菊里유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 이 시기의 松菊里유형은 石器에서는 다음의 III段階, 바꾸어 말하면 松菊里유적의 시기와 같으나, 土器類에서는 순수한 松菊里 type은 아니다. 이 시기의 松菊里유형 土器는 丹塗磨研土器에서만 특징적 요소가 발견된다. 즉 松菊里式土器의 특징을 짧게 外反하는 甕形土器로 볼 때 鳳溪里, 苧浦E地區4號支石墓, 蔚州 良東里유적<sup>26)</sup> 등지의 丹塗磨研土器에 보이고 있는데 모두 把手附鉢이 출토되고 있으므로 II段階로 편년할 수 있다. 이들 丹塗磨研

土器는 기형상으로는 松菊里유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실하다.<sup>27)</sup> 그러나, 松菊里土器 기형이 無文土器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丹塗磨研土器에 發現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의 이러한 松菊里유형의 출현은 把手附土器의 출현과 軌를 같이 하는 양상이 간취되므로 有溝石斧, 有莖式石劍, 把手附土器, 外反口緣土器의 구성을 가진 他地域土器文化와 접촉이 상정된다. 外反口緣土器의 출현은 I段階의 內傾口緣深鉢形土器가 새로운

<편 년 표>

	유적	유물	구	공	구	공	단	이	이	외	반	파	적	곡	무	평	첨	유
		구	순	렬	순													
		각	목	목	목	목	목	구	구	구	구	수	도	도	축	축	축	축
I 段	성산패총	○			○			○										
	하동 진고개					○			○									
	진양 사평리			○		○												
	거창 산포	○			○	○							○		○	○		
	저포E주거지	○			○										○	○		
	저포E7호지석묘												○		○	○	○	
II 段	신촌I구17호	○			○													
	대평리 주거지	○			○				○					○			○	
	부산 노포동				○	○								○			○	
III 段	합천 봉계리	○			○							○	○	○		○		
	저포E5,6호지석묘											○	○	○			○	
	부산 조도패총					○						○						
	울주 검단리					○	○					○		○			○	○
	울주 양동리					○						○						
	부산 사직동							○										
	부산 괴정동																○	
	부산 반여동					○	○											
IV 段	양산 신평											○						
	대야리(원형)											○	○	○			○	○
	대야리(장방형)											○		○			○	○
	신촌II구2지점											○		○				○
V 段	하동 양구										○							

(各段階에서 上·下는 時期順이 아님)

土器文化와의 접촉으로 자체적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적어도 有溝石斧, 有莖式石劍, 把手附土器는 外來系文化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Ⅲ段階: 松菊里유형이 확립된 시기로서 Ⅱ段階의 丹塗磨研土器에 나타난 外反口緣甕이 無文土器에도 채용되고 驛三洞·欣岩里유형의 無文土器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 이 시기의 대표적 유적은 大也里, 新村里Ⅱ地區 2地點, 河東 良邱유적<sup>28)</sup>이 있고 부여 松菊里유적도 이 시기에 편년할 수 있다.

## 5. 맺 음 말

筆者는 기존의 편년을 근거로 하여, 부산·경남의 無文土器에 「先松菊里類型」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였다. 이 類型은 驛三洞·欣岩里유형과 松菊里유적에 선행하는 형식으로 보았다. 그래서 부산·경남 지역의 松菊里유형은 결코 松菊里유적을 거점으로 하는 충남지방의 松菊里문화가 일원적으로 남부지방으로 전파된 것은 아니고 전시기의 문화를 토대로 새로운 土器·청동기·농경문화와의 접촉과 충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싶다. 그 새로운 문화의 일부는 把手附土器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 土器는 지금까지 부산·경남 더욱 폭을 넓히면 嶺南地方에 분포하고 있는 듯하지만 松菊里문화의 정착이 이 지역에 우선하였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南韓全域에서 Ⅱ段階의유형의 유적이 발견되리라 기대하고 싶다.

그리고 松菊里유형의 문화는 日本의 彌生文化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중시할 때 이 Ⅱ段階부터 다루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日本의 九州地方의 繩文晩期에 孔列土器와 松菊里유형의 유구·유물이 출토된다는 점을 부산 槐亭洞유적<sup>29)</sup>의 丹塗磨研土器와 연관하여 彌生文化의 원류를 밝히려는 시각<sup>30)</sup>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今年에 발굴된 검단리 환호집락과 일본초기의 환호집락과의 관계도 이러한 시각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本稿에서의 부족한 점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검단리유적의 보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 〈註〉

- 1) 林炳泰, 「漢江流域의 無文土器時代」, 「李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論叢」, 1969.  
李白圭, 「京畿道 無文土器·磨製石器」, 「考古學」3, 1974.  
申敬澈, 「熊川文化期 紀元前上限說再考」, 「釜大史學」第4輯, 1980.  
李清圭,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第一號, 1988.



- 2) 釜山大學校博物館, 「陝川 苧浦里E地區遺蹟」, 1987.
- 3) 林孝澤·郭東哲·趙顯福, 「居昌 陝川 큰돌무덤」, 1987.  
河仁秀,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大學院文學碩士學位論文, 1989.
- 4) 林孝澤 外, 註3)의 前掲文
- 5) 趙由典, 「慶南地方의 先史文化研究」, 「考古學」第五·六合輯, 1979.
- 6)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老圃洞遺蹟」, 1988  
尹炳鏞·宋桂鉉, 「釜山老圃洞遺蹟Ⅱ」, 釜山市立博物館, 1988
- 7) 崔鍾圭·安在皓, 「신촌리분묘군」, 「中島」Ⅳ, 國立中央博物館, 1983.
- 8) 沈奉謹, 「陝川鳳溪里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1989.
- 9) 林孝澤·郭東哲·趙顯福, 「大也里住居地」Ⅰ·Ⅱ, 東義大學校博物館, 1988·1989.
- 10) 全榮來, 「石器의 比較(日本과의 比較)」, 「韓國史論」17, 國史編纂委員會, 1987.
- 11) 鄭澄元·安在皓, 「蔚州檢丹里遺蹟」, 「考古學研究」第37卷 第2號, 1990.  
鄭澄元·安在皓·全玉年, 「蔚州檢丹里遺蹟 발굴조사 개요」, 「伽耶通信」19輯, 1990.  
安在皓, 「蔚州檢丹里遺蹟 발굴조사 개요」, 「第14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發表要旨」, 1990.
- 12) 韓炳三·李健茂, 「朝島貝塚」, 國立中央博物館, 1976.
- 13) 林孝澤, 「釜山 盤如洞遺蹟 發掘調查概報」, 「嶺南考古學」2, 1986.  
李清圭, 註1)의 前掲文.
- 14) 金延鶴 編, 「韓國의 考古學」, 河出書房新社, 1972.  
安在皓, 「釜山 社稷洞出土 一括遺物」, 「釜山大博物館新聞」, 1984.
- 15) 安在皓, 「梁山 薄地里 新平遺蹟出土 無文土器」, 「伽耶通信」第10號, 1984.
- 16) 姜仁求·李健茂·韓永熙·李康承, 「松菊里Ⅰ」, 國立中央博物館, 1979.
- 17) 李清圭, 註1)의 前掲文.
- 18) 河仁秀, 註3)의 前掲書.
- 19) 李白圭, 「漢江流域前半期 민무늬토기의 編年에 대하여」, 「嶺南考古學」第2號, 1986.
- 20) 李白圭, 註19)의 前掲文.
- 21) 韓炳三·鄭澄元, 「東區貝塚 發掘調查報告」, 「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調查報告」, 1976.
- 22) 李清圭, 註1)의 前掲文.
- 23) 趙榮濟, 「西部慶南 先史文化 地表調查報告(Ⅰ)」, 「釜大史學」第七輯, 1983.
- 24) 全榮來, 註10)의 前掲文.
- 25) 金元龍, 「韓國半月形石刀의 發生과 展開」, 「史學志」6, 1972.  
安在皓·河仁秀·李海蓮·서영남, 「3. 考察」, 「陝川苧浦里E地區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1987, p. 286.
- 26)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州良東遺蹟調查概報」, 1985.
- 27) 河仁秀, 註3)의 前掲書, p. 32~33.
- 28) 趙永濟, 註23)의 前掲文.
- 29) 이 유적에서는 Ⅱ 단계로 편년되는 단도마연토기가 출토되었다.  
河仁秀, 註3)의 前掲書, p. 32.
- 30) 申敬澈, 「釜山の 考古學-청동기시대」, 부산라이프, 1988.